



“목발 짚지 않아도 OK” 타이거 우즈 회복 순항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가 지난 2월 교통사고 이후 목발을 짚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주니어 골프대회장에 우즈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즈는 목발을 짚지 않고 오른 손에 전 골프클럽에 몸을 기대고 선 채 아들들의 스윙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우즈는 2월 LA 인근 지역에서 직접 운전하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골프채널은 “우즈가 언제 다시 대회에 나설지는 불투명하지만 복귀를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Mack Williams 소셜미디어

## 삼성화재배 나선 신진서 한국바둑 자존심 지켜줘

세계대회 11연승...32강전 中 세열하오와 맞대국



신진서 9단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의 본선32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 1인자 신진서의 상대는 중국의 세열하오다.

7일 성동구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진행된 조추첨식 결과에 따르면 본선 32개 경기(32강전)는 한중전 11경기, 한일전 3경기, 한국과 대만 1경기로 확정됐다. 남은 1경기는 중일전이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6년 연속 중국에 우승을 내줬다. 역대 최다 우승기록은 아직 한국(12회)이 갖고 있지만 중국(11회)이 무섭게 추격 중이다. 한국의 우승은 2014년 김지석이 마지막이었다.

우승에 대한 갈증이 최대치에 오른 만큼 1인자 신진서에 대한 바둑팬들의 기대가 크다. 신진서는 지난해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중국 쉰제에게 0-2로 완패한 아픔이 있다. 이번 32강전에서 신진서는 중국의 세열하오와 맞붙는다. 일단 기세가 좋다. 신진서는 세열하오에게 통산 전적에서 6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세열하오는 22기 LG배에서 우승(2018)한 세계 챔피언 출신이지만 신진서에 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게다가 신진서는 9월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 우승 등 올해 열린 세계대회에서 11연승의 무패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랭킹 2위 박정환도 기분좋은 대진표를 받았다. 32강 상대 리웨이칭은 그동안 5차례 만나 4승 1패로 우세다. 박정환은 삼성화재배에서 결승무대를 밟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4강 진출 3회가 최고 성적이다. 랭킹 3위 변상일의 상대도 중국기사다. 미유평과 16강 티켓을 놓고 겨룬다.

역대 우승자들도 ‘진격’을 준비 중이다. 김지석(2014년), 원성진(2011년), 이창호(1997~1999년)는 각각 중국의 쉰제, 양링신, 자오천위와 격돌한다. 메이저 세계대회 본선에 첫 출전하는 홍일점 조승아는 일본의 아마시타 게이이코를 만났다.

전기 대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막을 올리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본선은 20일 32강전을 시작으로 28일 4강전까지 단판 토너먼트로 결승 진출자 2명을 가린다. 이어 11월 1~3일 결승3번기로 챔피언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우승상금은 3억 원, 준우승상금은 1억 원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 명품 가드가 만든 승리

# 박찬희 16점 5AS 활약 DB 개막 2연승 신바람

3쿼터에만 3점슛 2개 포함 10점  
김종규도 12점·9리바운드 괴력  
차·포 빠진 현대모비스는 2연패



원주 DB가 가드진의 우위를 앞세워 개막 2연승을 신고했다.

DB는 11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울산 현대모비스와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홈 개막전에서 박찬희(16점·5어시스트·5스틸), 허웅(11점·4어시스트) 등 가드진의 활약을 앞세워 81-69로 이겼다. 개막 2연승을 거둔 DB는 경기가 없었던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1위로 나섰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개막 2연패를 당했다.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좋지 않은 소식을 먼저 전했다. 외국인선수 라슨 토마스와 가드 이우석의 결장이었다. 유 감독은 “허벅지가 좋지 않아 개막전에 결장한 토마스는 오늘도 쉰다. 오전까지 체크했지만 좋지 않다고 해서 회복시간을 더 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우석은 개막전 이후 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다.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아서 경기 시작에 앞서 먼저 수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막전 직전부터 몸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잇따라 나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잘 정비해야 할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예상대로 경기는 DB의 일방적 페이스로 흘러갔다. 가드 싸움에서 DB가 절대 우위를 점했다. 이우석의 결장으로 현대모비스는 서명진(3점·6어시스트)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다. 이에 맞서 DB는 허웅, 박찬희로 구성된 가드진의 우위를 바탕으로 물 흐르듯 경기를 풀어가며 1쿼터 시작 후 5분여 만에 15-4로 11점차 리드를 잡았다. DB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은 채 2쿼터까지 40-29로 앞섰다.

3쿼터 시작 후 잠잠했던 박찬희가 3점슛 2개를 포함해 10점을 홀로 올린 DB는 54-32, 22점차까지 도망갔다. 현대모비스의 반격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득점이 필요할 때마다 외국인선수들이 골밑 공략에 성공한 덕분에 DB는 62-50으로 4쿼터에 돌입할 수 있었다.

DB는 4쿼터 들어 갑자기 흔들리며 68-61, 7점차까지 쫓겼다. 하지만 박찬희가 팀을 지탱했다. 김종규(12점·9리바운드)의 2점 골밑슛을 이끌었고, 이어진 공격에선 골밑 2점을 직접 책임지며 DB의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책임졌다.

원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DB 가드 박찬희(왼쪽)가 11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와 홈 개막전 도중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박찬희는 이날 16점·5어시스트의 활약으로 팀의 81-69 승리에 앞장섰다. 원주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 “드래프트 앞당기길 잘했네”...KBL 개막전부터 뜨거운 신인들

삼성 이원석, 홈 개막전서 9점 활약  
KT 하윤기, 8점·3R 운동신경 뽐내  
가스공사 신승민도 팀 2연승에 일조

KBL이 2021~2022시즌 앞두고 가장 큰 변화를 준 부분은 신인드래프트 시기다.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시즌 개막에 앞선 지난 달 29일 드래프트를 실시했다. 선발된 신인들은 곧장 팀에 합류해 시즌 준비를 했다.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덕인지 개막전부터 각 팀이 신인들을 활발하게 기용하며 리그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다.

비시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초를 겪은 서울 삼성은 전체 1순위 신인 이원석을 10일 홈 개막전부터 기용했다. 1쿼터 도중 교체로 출전한



삼성 이원석



KT 하윤기



가스공사 신승민

이원석은 3점슛 1개를 포함해 9점을 뽐내며 팀이 창원 LG를 꺾고 시즌 첫 승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

수원 KT는 센터가 필요한 팀 구성상 하

윤기를 첫 경기부터 적극 기용했다. 전체 2순위로 선발된 하윤기는 10일 원주 DB전에서 25분여간 뛰며 8점·3리바운드를 올렸다. 주전 포인트가드 허훈의 부상으로 KT

가 홈 개막전에서 패해 주목받진 못했지만, 엄청난 운동능력을 앞세운 블로킹을 2차례 선보이며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이들뿐이 아니다. 3순위로 고양 오리온에 입단한 이정현, 7순위로 DB의 선수를 받은 정호영, 8순위로 대구 한국가스공사 유니폼을 입은 신승민도 선을 보였다. 특히 신승민은 10일 안양 KGC전에서 19분여만 뛰고도 리바운드를 10개나 잡아내는 등 2경기 연속 출전해 팀이 2승을 거두는 데 앞장섰다. 이정현과 정호영도 뛰어난 활약은 아니지만 2경기 연속 기회를 잡으면서 순조롭게 프로에 적응하고 있다.

모처럼 여러 신인들이 개막전부터 인상적 활약으로 팀뿐 아니라 리그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예년과 다르게 신인들이 좋은 기량과 기록을 쌓으며 벌써부터 치열한 신인왕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 비밀결혼 이다영 “전 남편, 결혼 사실 폭로 빌미로 금품 요구”

“근거없는 주장, 법정서 가려질것 사생활 보도 방송사엔 법적 대응”

지난 주말 V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이다영(25·PAOK)의 비밀결혼 폭로였다. 8일 TV조선에서 이다영과 이혼수속을 밟고 있는 전 남편의 주장을 방송했다. 그에 따르면, “이다영이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지속적인 폭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 내용이였다. 2월 불거진 학교폭력 폭로 사건 이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다영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새로 나오자 매스컴은 관련 뉴스를 또 쏟아내고 있다.

학교폭력 폭로, 그리스 진출 등과 관련해 반론권조차 주지 않은 일방적 보도에도 일침 대응하지 않았던 이다영 측은 이



이다영

틀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결혼 사실을 인정하고, 별거 중인 전 남편이 결혼 사실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2018년 4월 혼인신고 하고 4개월간 결혼관계를 유지했지만 이후 별거 중이며 이혼수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남편 측에서 결혼하기 전에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 원을 요구했다”며 “이혼과 관련한 내용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

의 사생활이다. 보도를 한 방송사에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다영 측은 “별거 이후 계속 다양한 경로로 금품을 요구해왔는데 들어주지 않아 방송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전 남편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부당한 협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 남편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다영의 사생활을 추가로 폭로했다. 11일 TV조선은 통해 이다영의 의외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혼수속과 관련한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결혼과 이혼 사실을 인정한 이다영 측에서 전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월말 V리그의 선수등록과 최근 국제배구연맹(FIVB)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앞두고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섰던 이다영-재영 쌍둥이 자매는 12일 주한 그리스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인터뷰를 한다. 비자가 발급되는 즉시 그리스로 떠날 예정인데, 항공편 사정상 이르면 15일 출국할 전망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